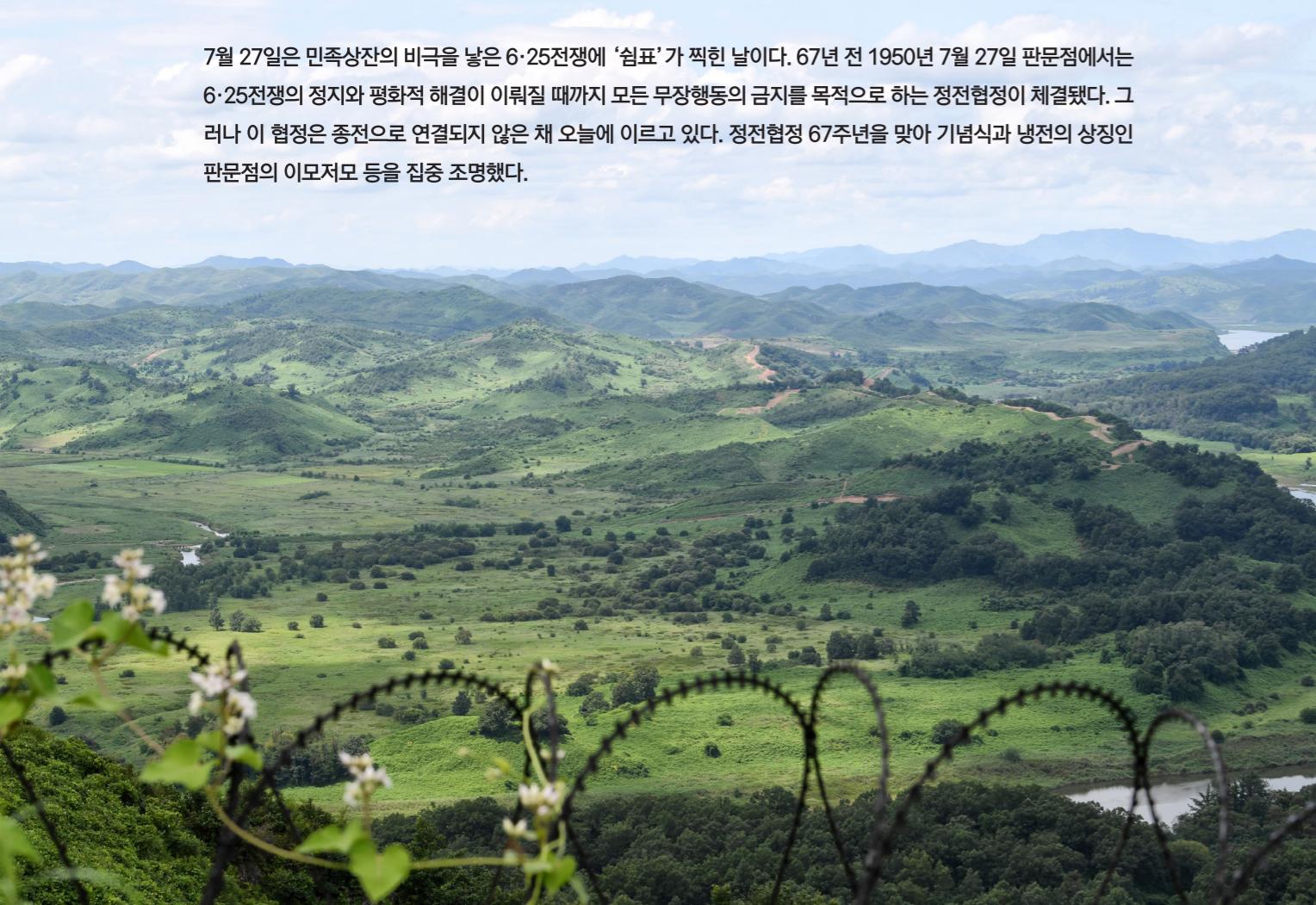


7월 27일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낳은 6·25전쟁에 ‘쉼표’가 찍힌 날이다. 67년 전 1950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는 6·25전쟁의 정지와 평화적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무장행동의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 협정은 종전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냉전의 상징인 판문점의 이모저모 등을 집중 조명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참전용사들에게 최고의 보답”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7월 27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면서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뜻을 받들어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세계의 도움을 받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면서 “세계 13개국에 평화유지와 전쟁 복구, 의료지원 임무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전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소개한 정 총리는 “70년 전 여러분이 그러셨듯이, 지금 대한민국도 ‘지구촌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류의 ‘평화’를 위하는 일에 국경이 없듯이, ‘보훈’에도 국경이 없다”고 언급한 정 총리는 “지난 3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천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70년 전 유엔군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에도 한반도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면서도 “평화의 길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고,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이 보여주신 유엔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제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정세균 국무총리가 ‘6·25전쟁 70주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가보훈처가 개최한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에는 정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6·25 참전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의 날들, Days of Glory’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6·25전쟁 당시 우리와 함께 총을 든 22개 나라, 195만 명의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유엔 참전용사를 대신해 국내 유학 중인 참전용사 후손들을 초대해 의미를 더했다. 참전용사들을 위해 헌신한 ‘한국전참전협회’ 샬럿 오케인 씨 등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정전협정 서명 순간까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유엔군 전사자 15명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

임채무 기자

우리가 몰랐지만 알아야 할 JSA

JSA 비하인드 8가지

남북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주 보며 대치하는 곳, 바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다. 냉엄한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이 공존하는 역설의 공간 JSA.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우리가 잘 몰랐던 JSA의 다양한 면모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1. 한미 지휘관이 함께 이끄는 연합부대

판문점 JSA를 포함한 ‘군사정전위원회본부구역(MACHA)’에서는 ‘유엔사 경비대대’(미측)와 ‘JSA경비대대’(한측)가 연합부대로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비 임무는 한국군 JSA경비대대가 수행하고, 유엔사 경비대대가 JSA경비대대를 작전통제하는 구조다. 한측 JSA경비대대장은 유엔사 경비대대의 부대대장직을 겸직하며 미측 지휘관과 함께 연합부대를 이끈다.



JSA경비대대 장병들이 우발적 상황을 대비해 훈련을 하고 있다.

2. 캠프 보니파스와 BRF 소초의 의미

JSA 일대에는 특별한 의미의 이름을 가진 시설이 많다. JSA 인근 한미 장병이 주둔하는 ‘캠프 보니파스’와 JSA 내부 한국군이 주둔하는 ‘BRF 소초’가 대표적이다.

1976년 8월 18일 JSA에서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에 의해 도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유엔사 측 경비중대장 보니파스(Bonifas) 대위와 경비소대장 배럿(Barrett) 중위였다. 캠프 보니파스는 과거 캠프 키티호크(Camp Kitty Hawk)로 불리다가 북한의 도끼만행사건 10주년인 1986년 8월 18일 북한에 희생된 보니파스 대위를 기리기 위해 개칭됐다. 배럿 중위를 추모하기 위해 ‘Barrett Readiness Facility’로 명명된 BRF 소초의 한국군 장병들은 판문점에서 진행되는 회담, 송환, 안보견학 등 각종 행사마다 철통같은 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대한민국 최전방 GP, ‘OP.O’

대한민국 최전방 GP는 JSA에 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5m 떨어진 ‘오울렛 소초(OP.O)’다. OP.O는 군사정전위원회본부 ‘갑’ 구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어 개

성공단과 기정동, 송악산까지 관측 가능하다. 비무장지대(DMZ)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감시, 수색정찰여건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O.P.O는 역대 미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귀빈들이 다수 방문한 역사적이고 유서 깊은 GP로서 한미 동맹의 상징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

4. 높이 5cm, 폭 50cm, 분단의 경계선

JSA 안에서 남북은 한 걸음도 채 되지 않는 군사분계선(MDL) 표지석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이다. 분단과 정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함축하고 있는 이 콘크리트 경계선의 높이는 고작 5cm, 폭은 50cm에 불과하다.

판문점 설치 초기부터 남북이 이렇게 삼엄하게 대치했던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 직후 판문점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구분 없이 공동경비가 이뤄져 남북 간 상호 교류가 가능했다. 양측 군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북한이 자행한 도끼만행사건을 계기로 서로 간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콘크리트 MDL 표지석이 설치됐고, 이 경계선이 분단의 상징처럼 오늘날까지 남아 JSA를 가르고 있다.

표지석 위에 긴장과 갈등의 역사만 각인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에는 남북 두 정상이 만나 군사분계선 위에서 손을 맞잡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5. 어떤 상황에도 빈틈없는 대비태세

남북 정상의 극적인 만남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JSA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북 경비 병력이 모두 비무장으로 근무를 서고 있다는 점.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 중 하나인 JSA 비무장화 추진으로 남북의 경비 병력은 각각 35명으로 줄었고 모든 화기 가 철수됐다. 현재까지 남북 양측 모두 합의를 지키며 권총을 포함한 어떤 총기도 허용하지 않고 근무를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단의 상징 JSA 안에서 모든 무기가 사라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물론, 만약의 상황에 대한 군의 대비태세에는 빈틈이 없다. BRF 소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기동타격대가 우발 상황 시 즉시 정전상태를 회복·유지하기 위한 상시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6. 우발적 상황을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JSA경비대대가 지키는 판문점 일대는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부대는 우발적 상황과 악조건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악조건하 전투사격(Stress Shoot)’ ‘우발상황대비 훈련’ ‘기동사격 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악조건하 전투사격은 군장을 메고 전력질주한 뒤 팔굽혀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격하는 방식으로 가혹한 사격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모든 사격훈련은 사전 비사격 및 공포탄 사격 훈련에 이어 실사격 훈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JSA경비대대는 연합 전투부대로서 한미 연합 사격, 구급법 교육, 응급의무후송 등 활발한 연합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장병 간의 우정을 증진하고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민사작전을 펼치는 JSA경비대대 장병.

7. 대한민국 유일의 민사작전 전담부대

JSA경비대대에는 한국 유일의 민사작전 전담부대, 민정중대가 있다. 중대는 대한민국에 단 하나뿐인 DMZ 내 민간인 거주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출입자 경호(Escort), 주민들의 영농활동 시 근접경호 작전을 수행하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민사업무와 구제사업 등을 지원한다. 행정구역상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대성동 마을은 유엔군사령부의 민사행정 통제를 받는 특수한 마을이다. MDL까지 거리가 불과 400m 정도인 대성동 마을은 정전협정의 ‘남북이 DMZ에 마을을 각각 하나씩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북한의 선전마을인 기정동 마을과 대치하는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8. 널문리의 이름 없는 주막이 판문점으로

판문점이란 이름은 언제, 어떻게 지어진 것일까. 판문점 일대의 본래 이름은 ‘널문리’였다. 과거 임진왜란 때 왜군을 피해 북쪽으로 피란 가던 선조 일행이 다리가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하자 마을 백성들이 집의 대문(널문)을 뜯어 임시로 다리를 놓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 이후 6·25 전쟁 당시 정전회담 과정에서 중국 측 대표들이 행사 장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이름 없는 주막에 널문리의 한자식 표기를 내걸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판문점(板門店)의 유래로, 板(판)은 ‘널조각’을, 店(점)은 ‘가게, 주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판문점에서 6·25전쟁으로 발생한 남북 및 중공군 포로들이 송환됐고 정전협정까지 체결된다. ☞

김상윤 기자

“유엔사 경비대대는 한미동맹의 상징”

최진용(중령) JSA경비대대장, 릭 루스(중령) 유엔사 경비대대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을 수호하며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빛나고 있는 연합부대가 있다. 유엔사 경비대대와 JSA경비대대다.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아 JSA 연합부대를 이끄는 두 명의 지휘관, 릭 루스(중령)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장, 최진용(중령) JSA경비대대장으로부터 최전선에서 느끼는 한미동맹의 의미와 역할, 미래 부대의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JSA를 지키는 한미 대대장들은 최전선에서 함께 근무하며 ‘동맹’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다. 최진용 JSA 경비대대장은 과거에는 ‘동맹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것’이라 여겼다. 동맹은 철저하게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JSA경비대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그의 생각은 조금 달라졌다. 동맹의 신뢰가 차가운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새로운 확신이 최 대대장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한미 장병들이 감정을 나누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상호 신뢰가 점점 두터워짐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던 선배 전우님들이 느꼈던 감정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JSA경비대와 유엔사 경비대는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고, 실제로 최전선에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대표 연



좌)최진용(중령) JSA경비대대장.
우)릭 루스(중령) 유엔사 경비대대장.



합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릭 루스 유엔사 경비대대장 역시 직접 경험해 본 대한민국 장교, 부사관, 용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며 “기꺼이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군 장병들은 전술적으로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훈련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대 정신(esprit de corps)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여러 차례 참전했는데, 만약 한국군 JSA경비대와 함께 싸우라고 한다면, 기꺼이 함께 참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루스 대대장은 “유엔사 경비대의 저력은 매일 마주하는 특수한 작전 요구 사항과 끈끈하게 단결된 연합부대(integrated and cohesive unit)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며 한미 장병들의 단결과 화합이 연합부대를 강하게 만드는 원천이자, 임무 완수의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우리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훈련하고, 다 함께 일하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본부구역(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Headquarters Area)을 경비합니다. 또한 대성동 마을 경호 임무와 함께 판문점의 수호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유엔사 경비대대는 강하고 훌륭한 능력을 갖춘 한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엔사 경비대대가 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미 대대장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포부도 남달랐다. 최 대대장은 ‘명실상부 최고의 작전수행태세를 갖춘 부대’라는 원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전 현장을 가시화하고 지휘결심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작전 성패의 핵심입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5G에 기반한 초고속, 광대역, 초저지연 연합 지휘통제체계, ‘5G 기반 가상현실 통합 지휘통제 플랫폼’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

로 실시간 작전 모니터링이 가능한 ‘카이샷-3’ 전력화, 전장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는 지휘통제실 ‘비디오 월(Video Wall)’ 구축 등을 상급부대에 건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만큼이나 사람에게도 많은 관심을 쏟는 최 대대장이다. 그는 “대대의 전간부가 선발 방식으로 보직된다”고 강조하며 “그만큼 어느 부대의 간부들보다도 사명감이 투철하고 애대심이 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런 자랑스러운 간부들을 위해 행복한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자 힘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최 대대장은 “50인실 간부 숙소 신축, 간부 편제 보강, 노후장비 교체 등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세운 목표를 하나하나 현실화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루스 대대장은 “유엔사-JSA 경비대대는 진정으로 하나된 연합부대”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며 이와 연계한 자신의 명확한 비전을 밝혔다.

“한미 연합부대인 유엔사 경비대대가 ‘확고한(ironclad)’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널리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연합부대로서 말이죠. 또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전략적 대화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작전지역을 통제한 가운데 적대행위를 억제하며, 유엔군사령관을 대신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울러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신뢰와 자신감을 배양하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JSA는 남북 분단의 아픔과 평화를 향한 염원을 동시에 품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특히 판문점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5만여 명 이상으로, 살아있는 안보교육 현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대대장은 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JSA의 미래를 그리며 인터뷰를 마쳤다. **[포토]**

김상윤 기자

